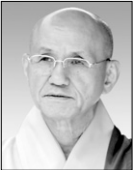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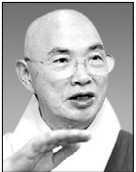


일주문



‘문경으로가는길’ 개최
지구총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0월 10~11일 1박 2일간 국내스튜디오 투어 ‘문경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02)455-9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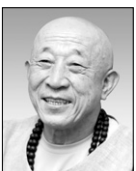
‘문화일림이’ 완주문화원 강연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은 9월 1일 완주군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일림이’ 앙상교육에서 ‘행복한 삶’을 주제로 법문했다.



참여연대 후원의 밤 개최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위원장)은 9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 창립 15주년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시신기증자 천도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7일 오전 11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제15회 장기 및 시신기증자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한다.(02)734-8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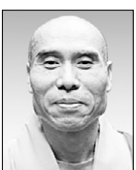
고희기념 초대전
통도사 문수원 수안 스님은 9월 18~26일 부산 대연동 KBS 전시장에서 고희기념 초대전을 개최한다.



화계사 난치병어린이들이 후원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은 9월 19일 ‘난치병어린이 돕기 후원금 조성 바자회’를 개최한다. 톨포문연 중.(02)902-2663



화엄사 태현 스님 추모법회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9월 22일 화엄사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동현당 태현 스님 열반 26주기 추모법회 및 사리탑·비 제막식을 개최한다.



화인요양보호사교육원 개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부설 화인요양보호사교육원 1급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9월 21일 개강한다.



법암사 개산대제 백고좌 법회
화엄불교대학 학장 진귀 스님은 9월 20일 대구 법암사 개산대제 제20회 백고좌 대법회에서 <화엄경> ‘도솔궁중 개천품’을 법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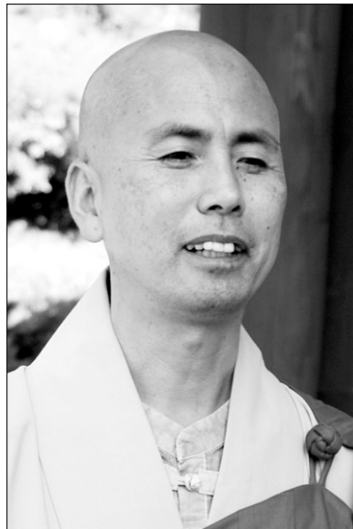


양천서 경승실장 위촉식
서울 장안사 주지 성민 스님은 9월 2일 양천경찰서 경승단회의에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됐다.

“모두 하나돼 고운사 성공 일귀”

조계종 16교구본사 혁신 이끄는 호성 스님

일체의 존재는 변화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교리를 구제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제 모든 개인, 회사, 국가 등 유기적 생명이나 조직체는 변화와 혁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변화는 큰 틀인 제도와 의식을 바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남이 아닌 내 자신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준공, 올해 1월 고운사 승가대학 기공 등 재정지립도가 낮은 본사로서는 벽 참만한 큰 불사를 원만하게 이뤄왔다. 또한 호성 스님은 외형적인 불사 뿐만 아니라 불교전통문화를 통해 오랫동안 소원했던 지역민들을 고운사로 모으려 했다.

지배의 김장 담그기 행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문화 체험 등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행사를 펼쳐왔으며 주말 템플스테이(매월 둘·넷째 토)와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매월 첫째 토) 등 실행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호성 스님의 이러한 지도력은 본사와 52개 말사들이 함께 모든 것을 추진하고, 결과를 말사와 지역사회에 고루 회향해 결속력을 다지면서 얻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호성 스님은 “대중과 함께 하는, 말사와 함께하는 교구본사를 지향하며 총무행정에 임해왔다”며 “중생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중생 속으로 다가가는 사찰이 될 때 불교중흥이 가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호성 스님은 “고운사의 작은 변화가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일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승가대학 설립을 비롯한 윤원, 염불원 불사의 원만성취를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화합·발전 위한 종도단합대회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10일 인천 호불사서 봉행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총무원장 화엄)은 9월 10일 인천 호불사에서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도단합대회”를 봉행했다.



10일 봉행된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종도단합대회.

종정 봉해 스님을 비롯한 종도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일불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장자 종단으로서 위상확립과 화합과 안정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종정 봉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은 내가 오고 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오고가는 이치를 알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맑게 정진해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의장 경원 스님은 “일불 종자의 유일 종단으로서 종단을 혼드는 해종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단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화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불 종자의 법통을 계

승한 유일 정통종단이며, 종단협 소속의 한국불교 종추종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정진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 원로스님들의 격려사가 이어졌고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스님의 선창으로 전 종도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종도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불 종자의 유업을 계승한 정통종단의 자부심 각인, 일불 종자의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굳건한 단결, 해종 행위자에 대한 단호한 척결, 종단협의회 상임 종단으로서의 역할 등을 다짐했다. 노덕환 기자

대승불교본원종 창종 20주년 취임법회 봉행

제5대 종정 범해 대화 대종사 추대 및 각 원장 취임

대승불교본원종은 9월 9일 총본산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창종 20주년 및 제5대 종정 범해 대화 대종사 추대, 제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범용 대종사, 제6대 만혁 총무원장 및 각 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대화 스님을 비롯해 종단일원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제5대 종정으로 추대된 범해 대화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죄업중생의 입을 잠회하고 정진해 나가며 종도들은 불자들의 생활 속을 파고들어 함께 아픔을 나누는 서민의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날 제6대 총무원장 만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창종 20주년을 맞는 청년 종단으로서 한국불교 종추종단의 패기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종단 발전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한국불교 종추종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종정 대화 스님.



총무원장 만혁 스님.

“진료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앞장”

한의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 이수완씨 선출

“불도를 행하면 불도가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자 한의사 역량의 향상과 보나나는 진료활동으로 사회적 기여 확대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의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 이수완 초대회장.

한의사불자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이수완(구생한의원)씨가 선출됐다. 9월 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후원회장, 각 식도지부 회장단 등 지도단 추대 및 임원선출, 회칙제정 결의, 창립서원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수완 회장은 15년 전 대한불교한 의사회 회장직임의 노후를 살려 선·후배 간 관계강화와 전국 각지에 뿌리를 흩어져 있는 불자 한의사를 결집시키는데 진력할 전망이다. 특히 한의 대학 불교동아리 지원 사업, 생활여건이 어려운 불자 한의학도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 사업 등의 인재발사에 힘을

계획이다.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 선·후배 한의사의 인연 고리가 질실 한 때입니다. 한의대내 불교 학생회 대부분이 외해되거나 대폭 축소돼 불자한의사 결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은 선·후배 간 긴밀한 관계형성과 환자와의 마음교류 등의 경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원으로 활동할 경희대, 동국대, 상지대 등 한의학과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국내·외 의료봉사와 불자들을 위한 제반 사업, 가족템플스테이나 수행분과 등의 운영으로 실행성 고취 및 인격도야를 위한 수련사업, 불교계 제 단체와 연계한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한의사불자연합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상연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방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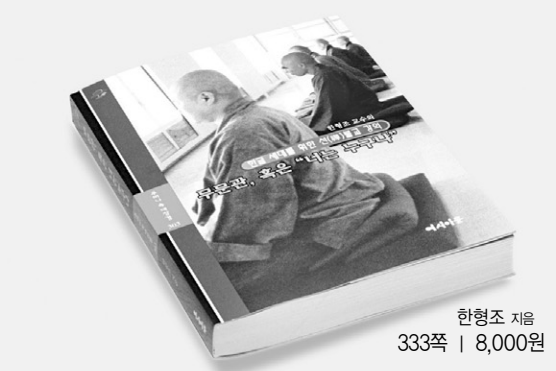
지혜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 지음 · 대승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만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삼」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삼」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